

교회에서의 교육

노 윤 백

목 차

- | | |
|-----------|---------------|
| 1. 교회의 의의 | 4. 교회와 교회학교 |
| 2. 교회와 교육 | 5. 목회자와 교육 |
| 3. 신학과 교육 | 6. 교회성장과 성경교육 |

1. 교회의 의의

교회(church)란 *ἐκκλησία*의 희랍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으로, 그 뜻은 희랍인들 가운데 자유민들이 公衆의 일로 서로 의논하기 위하여 각기 자기들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나와 모이는 집회를 의미한 것이었다(행 19:32, 39,41). 이러한 뜻으로 본다면 *ἐκκλησία*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뜻한 것이 아니고, 여타가지 목적으로 한데 모인 무리를 말한 것이었다. 그러나 신약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보통으로 쓰이는 말을 하나 택하여 거기에 영적인 내용을 넣었던 것이다.

신약에서의 교회는, “예배드리는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세계적인 조직체나, 국가적인 교회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근거도 없다. 신약성경에 교회라는 말이 사용된 곳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 에베소서 1장 22절; 3장 10절, 21절; 5장 23—25절, 27절, 29절, 32절; 골로새서 1장 18절, 24절; 히브리서 12장 23절 등이다. 이 구절들에 관해서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상적인 회중 또는 믿음으로서 표시되고 있다.”¹⁾

“같은 주를 섬기는 신앙으로 인하여 결합하여 같은 생활과 구원과 공동의 목적과 주장에 참여하므로써 뭉쳐진 하나의 유기체라 할 수 있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온전한 단체이다.”²⁾

“모든 세대에 있어서 하늘과 땅위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의 전체를 뜻한다.”³⁾

“성경적인 의미에 있어서 교회는 언제나 독립적이며 지방적인 조직체이다.”⁴⁾

신약성경에는 교회를 묘사하는 말로, “영광스러운”, “거룩한”이란 말들이 있다(엡 5:21). 그러나 신약성경에 유형적, 무형적, 지방적, 일반적 혹은 세계적이란 말로 묘사한 곳은 없으며, 그리스도인의 교회라는 표현도 없다. The New Hampshire Confession에서는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형적 교회가 믿음과 복음의 친교안에 있는 언약에 의하여 연합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의식을 준행하며, 그의 법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으며, 말씀에 의하여 주어진 능력과 권리와 특권을 행사하는 칩례받은 신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믿으며 교회의 유일한 성경적 직분은 감독(목사)과 집사이며, 그의 자격 및 권리와 의무는 디모데서와 디도서에 분명히 기록되었음을 믿는다.”⁵⁾

¹ John A. Broadus, *Commentary on the Gospel of Matthew*(Philadelphia: American Baptist Publication Society, 1886), p. 358.

² A. H. Newman, *A Manual of Church History*(Philadelphia: American Baptist Publication Society, 1898), I, 125.

³ E. C. Dargan, *Ecclesiology* (Charles F. Dearing, 1897), p. 33.

⁴ John T. Christian, *History of the Baptists*(Nashville: Sunday School Board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1926), p. 14.

⁵ The New Hampshire Confession, from J. Clyde Turner, *The New Testament Doctrine of the Church*(Nashville: Broadman Press, 1951), p. 10.

이상의 주장들을 종합해 보면 교회란 구속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결합된 침례받은 신도들을 말한다. 교회는 예수님이 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땅위에 세워둔 하나의 기관(organization)이다. 이 기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構造나 모양이나 재료와 장식에 대한 세밀한 설계와 계획을 알려주었고(히 8:5 참조),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교회를 사셨다(행 20:28; 엡 5:25; 고전 6:19-20). 그리고 교회에 그 임무를 직접 주셨기 때문에(마 28:19-20) 교회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기관이다. 또 교회는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곳이고, 하나님의 신이 거하는 곳(고전 3:16)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전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이러한 교회를 세상에 세운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대행자로서의 교회는 세상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로 무엇보다도 진리를 수호해야 하고 또 진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는 진리를 생산하는 곳도 아니고 진리의 원천도 아니라 진리를 守護하는 책임이 있다. 교회에 맡겨진 진리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 구원에 관한 진리,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죄에 관한 진리, 내세에 관한 진리 등이다. 이러한 진리를 교회는 수호해야 하고 또 세상에 알려야 한다.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려면 교회안에서 교인들이 서로 협동해야 하고(빌 2:1-4), 교회와 교회 간에도 서로 협력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롬 15:25-26; 고후 8:18-21).

2. 교회와 교육

일반교육을 일반 사회에서 개인에게 일어나는 변화과정이라고 말한다면,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의 개인의 성장과정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만 있다면, 또 그렇게 해서 그의 인격 전체를 잘 성장시켜 나갈 수만 있다면 학생의 믿음의 기반이 되는 공동체는 일반 세속적 사회 기구에 의존할 필요가 없

을 것이다.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은 회람적 인생관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 반면, 기독교의 교육과정은 역사적으로 당신의 백성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교육적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독교적 태도는 어떤 이론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태도는 분명히 신앙적 태도이며 이러한 신념이 없이는 기독교적 육성에 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교회교육의 관심은, “교회가 되기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교육의 중점은 종교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으로 하여금 성령이 인도하시는 공동체에 의뢰하며 충성스럽게 봉사하도록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일은 교회의 어느 일부 기관이나 몇몇 목회자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해야 할 일이다. 기독교 교육이란 전인교육 즉 인격전체의 원만한 양육에 그 관심을 두어야 한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한 사람이 교회에 충실하도록 교육해야 할 뿐 아니라 그가 일생동안 맞아야 할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싸워나가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 각자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가 유지되어야 원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이 지속될 것이다. 교회의 조직이나 기관은 다 개개인의 신앙성장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목적이 수단이 되고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러한 주객전도의 현상은 구약시대 부터 오늘날 까지 교회에서 계속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시정을 주도해야 할 책임이 교회 전체는 물론 특히 교회에서 교육이 더 중대함을 느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Edge는 “제도주의”(Institutionalism)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교회가 제도화 되는 몇가지 요인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요약해보면 이러하다.

1) 신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하나의 기관으로서의 교회 혹은 교회의 조직체와 더불어 우선적으로 관련을 맺을 때,

- 2) 교회가 교회 자체내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교회 본래의 사명 보다 자신의 생존과 발전에 더 깊은 관심을 가졌을 때,
- 3) 수단이 목적이 되고 목적이 수단이 될 때,
- 4) 신자들의 생활의 질보다 신자들의 믿음의 정확성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될 때,
- 5) 정신을 상실하고 형식만을 가지게 될 때.⁶⁾

오늘날 교회의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제도주의 화되어 가고 있는 경향이 결과적으로 교파주의나 율법주의, 권위주의, 물량(物量)주의 등에서 생겨진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분명히 교회의 본래의 목적과 위배되는 즉 교회의 정상적인 발전과는 반대되는 현상으로 이끌어가는 저해요인들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요소들이 교회에 만연될 때 하나님의 계시의 수령자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본래의 사명인 봉사와 선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본성(nature)을 분명하게 세상에 나타낼 수 없을 것이다. 제도주의가 심했던 유대교가 낳은 결과도 국가주의, 계급주의, 현세주의 등이며, 이러한 형식주의의 껍질이 극도로 단단해졌을 때 예수님은 교육을 통해서 그 껍질을 벗기고 연기만 피우던 그들의 신앙에 불을 붙여놓았다. 국가주의를 고수하던 그들에게 만인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원칙을 따라 개개인의 가치를 소유하는 개인주의의 바람을 이르켰고, 계급주의를 부르짖던 그들에게 하나님 안에서는 다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세계주의를 가르쳐 주었으며, 현세의 생활에만 급급하던 그들에게 내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어 그들에게 내세주의를 심어주었다.

교회에서 교육이 해야 할 일이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수령하는 데 있어서, 마치 예수님이 유대교의 형식주의의 껍질을 벗기듯이, 장애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며, 계시를 수령한 자들이 봉사하고 선교하는 일에 불

⁶ Findley B. Edge, 도한호(번역) 「기독교의 생명력」(서울:요단출판사, 1974), pp.28-31.

을 붙여주고 그들에게 길을 밝혀주는 일이다.

3. 신학과 교육

기독교 교육은 신학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시행될 수 없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위하여 생겨진 것이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생겨진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계시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즉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때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교회를 창설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으로, 이 말씀을 바로 듣고 순종하는 교회는 언제나 새롭게 지음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 봉사하게 하려고 오랫동안 준비시켜 온 유대교회가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야 말았다. 하나님은 교회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는 다른 교회를 불러서 이 일에 봉사하도록 하기도 한다. 즉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본然的 사명을 상실하고 말 때는 언제나 원수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 그렇게 되면 세속주의나 물질주의 등이 영적인 면을 앞지르게 되고, 영향력의 主流가 교회에서 세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나쁜 영향력이 교회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신앙이 혼란해지고, 신앙적인 승리의 준비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의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원수는 교회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고야 말 것이다. 그러므로 신학은 교회의 본성을 분명히 밝혀서 교회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의 임무이다. 신학의 기능은 복음을 풀이해 주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다. 또 기독교 교육철학은 교육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신학에 기초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계획된 기본원리를 명확하게 나타내 보여 주어야 한다.

기독교 교육의 근본적인 관심은 물론 성서적 계시를 전달하는 형식이나 구조나 수단이나 기술에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분명하고도 깊은 이해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은 기독교 교육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신학이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은, 첫째는 해석해 주는 것이고, 둘째는 결과에 대한 비평이다.⁷⁾ 즉 신학은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교회생활을 위한 복음의 본질과 의미와 목적을 해석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교회의 교육 분야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교 사업의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즉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 오신 일과 현재도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이며 그것에 비추어 그들의 영적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교육의 방법도 기독교의 복음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도 악한 방법은 배격해야 하고,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취되어야 할 영적인 목적과 부합되는가를 평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신학은 복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일을 항상 평가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즉 신학은 교회의 사업과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맹점이나 태만이나 실패나 과오 등에 주의를 환기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교훈을 주기만 하고 비판적인 임무를 도외시하는 신학은 교회생활을 감시하는 파수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신학이고, 자체내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불신의 위험에 대해서도 교회를 방임해 버리는 신학이라고 혹평한 학자도 있다.⁸⁾

신학은 교회에서 분야별로 담당해야 할 임무들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성서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교회의 생명의 근원을 성경 밖에서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자나 사도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교회에 밝혀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⁷ 上掲書, pp. 76—77.

⁸ J. D. Smart, 장윤철(번역) 「교회의 교육적 사명」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60), p. 44.

성서신학이 해야 할 임무다.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으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다른 모든 분야, 즉 선교, 교육, 설교 등의 활동이나 생활에 나타나 교회의 본성을 찾게 하고 그의 기능과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임무이다. 조직신학은 교회에서 진실과 허위의 한계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그것을 비판해야 할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교회는 오늘날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선배들은 어떻게 싸웠는지 그 모습을 찾아보게 하는 것이 그 임무다. 교회에서의 실천신학의 임무는 교회의 과거의 실천을 비판하고, 현재의 해야 할 일을 결정하며, 미래의 응답에 있어서 교회의 본성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그 임무다. 기독교 교육은 신학의 다른 부분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만일 교육이 신학의 여러 분야에서 떨어져 있다면 이러한 교육은 결국 기독교 교육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교육적으로는 아무리 훌륭하다해도 신학적으로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교육이 되고 말 것이다. 즉 신학이 없는 교육이나, 교육이 없는 신학은 서로가 위험성을 지니게 될 것으로, 신학이 없는 교육은 영적인 빈곤으로, 교육이 없는 신학은 미신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이다.

4. 교회와 교회학교

교회학교는 교회의 다섯개 기관(organization) 중의 하나이다. 교회의 기관 중의 하나로서의 교회학교는 몇가지 과업(task)이 있는데, 그 첫째되는 과업이 성서적 계시(Biblical revelation)를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가르쳐서 사람들이 주중(週中)에도 주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생활할 때 그 생활의 의미를 깊게 해 보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의미를 이해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교회도 본래의 뜻을 지탱해 나갈 수 없을 것

이다. 그것은 교회안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약해지고 또 혼란해지면 자연 교회밖에서 반대자들의 세력들이 교회 안으로 침범하고자 할 때 때문이다. 신약시대의 교회가 활기를 띠고 날로 믿는 자들이 더해가며 서로간의 교제가 날로 깊어져 갔던 이유도 사도들은 교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쳤고 교인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행 2:42).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새로운 신자들을 흡수하여 그들을 건전한 그리스도인과 봉사자로 성장시켰다.

두번째 교회학교의 과업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또 교회의 교인이 되도록 하는 일이다. 성경교육 Program을 수행해야 하는 교회학교 기관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들이 교회와 관련을 맺어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일을 한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학교는 잃어버림을 당한 자들을 찾아야 하고,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친교를 맺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교회학교 기관에서 하는 일이다.

세번째 교회학교의 과업은 사람들이 교회의 기능(functions)을 이루도록 하는 일이다. 성경공부를 하는 목적이 성경의 내용이나 메시지를 알아보는 것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성경의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의 기능을 성취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성경교육 Program을 수행하는 교회학교 기관은 교인들이, 1) 성경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과 그의 뜻을 이해하도록 해서 그를 예배하게 한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회의 공중예배나 개인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교육 Program의 임무 중의 하나이다. 2) 성경교육 Program의 내용이 바르 구축의 메시지이다. 교회는 이 구축에 관한 기쁜 메시지를 전할 때만이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성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복음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서로간의 친교(koinonia)가 더해진다. 3) 교회

에서의 교육은 크게 두가지 면에서 이루어진다. 세상에서 생활해 오던 사람들은 그리스도교의 근본적인 신앙을 지도(leading)와 교육(teaching)과 훈련(training)을 통해서 배워가며 성장해야 한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적절한 성경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성장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적인 발전을 加해야 한다. 4)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봉사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5) 그리스도교는 실천의 종교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그리스도교의 원리를 적용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실과 행위와 실천이 원만해질 때 그들의 믿음은 완전해지는 것이다.

네번째 과업은 교회나 교단이 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교인들에게 제공해 주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일이다. 이 일은 교회나 교단의 사업에 관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교회학교의 과업은 서로 분리시킬 수 없으며 또 분리해서도 안된다. 성경교육 Program은 가르치는 것(teaching)이 근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실천(action)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가르침은 완전해질 수 없는 것이다. 성경교육에는 이 action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학교 기관이 이러한 교육 Program을 수행하므로 인한 교인들에게 주는 유익점은 많다.

첫째는 교인들에게 교회에서 자기들의 위치를 알게 해준다. 한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음으로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천국의 새 시민이 되어 천국의 言語와 풍습을 배우게 된다.

둘째는 교인들이 은혜와 지식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벧후 3:18)나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은 성경 연구, 기도, 신앙간증의 모임에 참석하고, 공중예배, 신앙을 위한 공부 등

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셋째는 교인들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공부를 통해서 신앙(교리)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이 미신으로 흐르지 않고, 신앙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는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네째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고수하게 한다. 복음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받은 교인들은 복음을 고수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게 된다.

다섯째는 그리스도교 정신을 계발시켜 준다. 그리스도교 정신이란 복음의 진리에 대해에 열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언제나 어디에서나 전하는 선교정신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정신은 복음의 진리를 공부하는 데서만이 생겨지는 것이다.

5. 목회자와 교육

목사는 교회에서 전체 Program을 감독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의 임무는 많기도 하지만 다양하기도 하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교회를 처리하는 행정가요, 예배시간마다 설교해야 하는 설교자요, 양떼를 인도해야 하는 목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하다(엡 4: 11-12 참조). E. Y. Mullins는 교회에서의 목사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A hostile pastor equals a dead Sunday School; an indifferent pastor equals an inefficient Sunday School; an officious pastor equals a chaotic Sunday School, but a cooperating and sympathetic pastor equals an efficient Sunday School.”⁹⁾

⁹⁾ H. W. Byrne, *Christian Education for the Local Church*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63), p. 70.

목사는 교회에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훌륭한 자격을 갖춘 교사이기 때문에, 그가 교회학교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재능을 완전히 말아래 숨겨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다. 그가 교회학교에서 찾아하는 위치는 영적으로나 격려적인 면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교회에서의 교육의 성공과 실패는 전적으로 목회자의 협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내일의 교회의 지도자나 일꾼이나 교인들은 어디까지나 오늘의 교회학교 안에 그 인물들이 다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오늘의 교회학교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서는 내일의 교회를 계속하고 설계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목사는 우선 교회에서 전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책임자——교육목회자나 교육부장——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목사는 교회전체의 책임자이므로 역시 전체 교회교육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교육책임자도 목회자의 전적인 협조와 지원을 받아야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목사는 교회학교 책임자와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다. 이 두 사람은 서로가 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학교 책임자는 교회의 vision을, 목사는 교회학교의 vision을 서로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목사는 교회에서 한 사람의 교사로서 자기의 임무를 받아들이며 또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직접 가르치셨던 교사로서의 본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의 생활학교로 생각하여 자기자신을 목사교사(Pastor-Teacher)로 생각하고 교회학교 사업을 분명히 깨달아 교회의 다른 모든 기관이나 협동체에 그의 지도력이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서 교육과 전도의 관계를 깊이 인식하여 교회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발전 즉 교회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유능한 일꾼들을 발견해서 그들을 훈련시켜 적재적소에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목사로서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목사가 교회학교에 대해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몇가지 점들

이 있다. 첫째로 자기는 교회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기는 교회학교에서 가르칠만한 자질이 없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목사가 교회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위신(威信)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이다. 목사가 교회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경시(輕視)하는 것은 잘못이다. 가르치는 일은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명령이다(마 28 : 19, 20).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교사로 언급했고,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만일 목사가 주일아침에 직접 교회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할 일이 많다면, 교회학교에 대한 관심이나 주의를 기울여 줄 수도 있다. 목사는 교회학교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 말을 William E. Hatcher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A minister who cannot thoroughly identify himself with his Sunday School ought not to be a pastor. Unfitness for service in this cardinal branch of christian activity amounts to a disability. To be useless in that department of Church work which has to do with the study of the Scriptures and with the salvation of the young is to offer an overwhelming argument against one’s worthiness of a pastoral charge.”¹⁰⁾

6. 교회성장과 성경교육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칠판을 받으며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 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

¹⁰ J. N. Barnette, *A Church Using Its Sunday School*(Nashville: Convention Press, 1937), p. 68.

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장 41—47절).

교회는 무슨 일을 하던지 성서에 근거해야 하고, 교회의 Program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Program을 수행하는 방법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방법이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사업은 어디까지나 교회가 받은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대부분부와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교회의 주되는 사업(임무)은 가능한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약성서적 교회의 교인이 되도록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거버(Vergil Gerber)씨는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

“신약성서적 교회에서는 질적 효율성이 언제나 수적인 어휘로 측정된다. 신앙고백을 하는 교인의 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산출한다. 이런 통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수, 침례를 받고 사도의 교훈을 따르는 자의 수, 성찬예식에 참여하는 자의 수에 대해서도 산출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따라서 신약성서적 교회의 영적 성장은 수치로 표현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질과 양은 같은 사실에 대한 두가지 다른 표현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가능한 일이다.”¹¹⁾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교회의 성장단계를 대체적으로 일곱가지임을 볼 수 있다.

- 1)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 2) 침례를 받아 구원의 사실을 외적으로도 나타내 보였고,
- 3) 이들이 믿는 무리의 공동체에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¹¹ Vergil Gerber, *Evangelism Church Growth*, William Carey Library, 1973.

4) 교회에 가입하여 신앙성장을 위해 계속적으로 가르침(교육)을 받았고,

5)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리스도교 공동체 생활(교제)을 해 나갔으며,

6) 그들은 구원의 복음을 자기들만 간직하지 않고 다시 밖으로 나가서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므로,

7)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해가는 교회의 성장을 이룩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 볼 수 있는 사실은 초대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바로 성경교육을 우선 순위에 두었다는 사실이다. 성경교육의 우선순위는 사도행전 2장에서 뿐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에서 다루어진 원리이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행 5장 42절). 이렇게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각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다른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도록 인도하는 일을 계속하여 교회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성경교육이 교회성장의 원리에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여러면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첫째, 성경교육은 하나님께서 설립한 교회의 기능 중의 하나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실이고 또 신약교회에서 이미 실천하여 성공하였고, 오늘날 계속 성장하는 교회에서도 우선적으로 성경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성경교육은 잃어버려진 영혼을 찾아 구원받은 자들을 성장시키는 기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째, 기독교 역사에서 중대한 개혁운동이나 부흥운동의 모든 역사는 성경을 다시 발견하였거나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는 운동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째, 오늘날의 남침례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는 요인들이 바로 성경교육, 교회학교의 사업 등에 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그러므로 성경교육의 우선순위는 앞으로 닥아오는 시대에서 그리스도교 교회들의 성장을 지속하는데 크게 공헌하게 될 것이다.

참고서적목록

1. Newman, A.H. *A Manual of Church History*. Philadelphia: American Baptist Publication Society, 1898.
2. Dargan, E.C. *Ecclesiology*. Charles F. Dearing, 1897.
3. Edge, Findley B. *A Quest for Vitality in Religion*. 도한호역. 서울 요단출판사, 1974.
4. Byrne, H.W. *Christian Education for the Local Church*.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63.
5. Smart, J.D. *The Teaching Ministry of the Church*. 장윤철역,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60.
6. Barnette, J.N. *A Church Using Its Sunday School*. Nashville: Convention Press, 1937.
7. Christian, John T. *History of the Baptist*. Nashville: Sunday School Board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1926.
8. Gerber, Vergil. *Evangelism/Church Growth*. William Carey Library, 1973.
9. "The New Hampshire Confession, from J. Clyde Turner," *The new Testament Doctrine of the Church*. Nashville: Broadman Press, 1951.
10. 정원모·정원식 편. 「교육과 국가발전」. 서울 : 교육출판사, 1972.